

# ‘폼생폼사 강진향교’ 입소문 타고 인기몰이

### 초·중·고생 등 누적 이용객 4천200명 기록 다산황차 다례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 호응

강진문화원 ‘폼생폼사 강진향교’ 체험 프로그램이 호평받고 있다. 강진문화원은 24일 “최근 장흥 에텐어린이집 교사와 원생들이 강진향교를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폼생폼사 강진향교의 대표 프로그램은 ‘다산황차 다례체험’과 ‘향교에서 만

난 합동정월’ 프로그램이다. 다산황차 다례체험은 강진 야생차와 청자로 만든 다기를 활용한 체험이다. 강진에서 18년 간 유배 생활을 했던 조선 최고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생애를 짚어 보며 다산황차를 배울 수 있다. 향교에서 만난 합동정월 프로그램은 청자 다기에서부터 시작해 천년백색 고

려청자의 본고장 강진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와 지역 예인을 조명한다. 기생이었으나 질곡의 삶을 이겨내고 가야금 산조 명인의 자리에 오른 병영 출신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합동정월에 대해 알아본다. 이 밖에도 ▲친환경 화장수 만들기 체험 ▲문화재 이용 방법과 생활 속 전통 예절을 배우는 ‘다소고시 전통예절 교실’ ▲고유의 전통놀이를 알리기 위한 ‘놀이 놀자 놀이가 밥이다!’ ▲중·고등학생 대상 문화재 지킴이 활동과 진로 특강 ‘꿈꾸는 너의 미래를 찾아서’ 등을 진행 중이다.

강진문화원은 강진향교를 교육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누적 체험객은 이달 18일 기준 4천200명에 달한다. 관내·외 유아,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폼소 체험객의 개별 참여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경희 장흥 에텐어린이집 교사는 “폼생폼사 강진향교 체험이 이미 유명하다.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체험 내용이 알찬 것으로 알려져 입소문을 탔다”며 “강진까지 오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 수업 회차



강진문화원이 2021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다산황차 다례체험’과 ‘향교에서 만난 합동정월’ 등 ‘폼생폼사 강진향교’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장흥 에텐어린이집 교사와 원생들이 강진향교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강진문화원 제공>

를 늘려 자주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경에 강진문화원 문화재활용팀장은 “강진문화원은 프로그램 내구성을 견고히 하고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할 계획”이라며 “강진 인물·역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완도군은 지난 22일 신우철 군수,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윤재갑·박진 국회의원, 이종걸 전 국회의원, 허궁희 군의회 의장,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개관식을 가졌다. <완도군 제공>

## 완도 ‘장보고韓商 명예의 전당’ 개관

### 장보고 대사 업적·역대 수상자 성공 스토리 전시

‘장보고한상(韓商) 명예의 전당’이 문을 열었다. 완도군은 지난 22일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전시하는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개관식을 개최했다. 장보고한상은 재외 동포 경제인 가운데 장보고 대사의 도전·개척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 경제·문화 영토 확장과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상을 선정하며 수상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전시하기 위해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을 건립했다.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은 1·2층 면적을 합쳐 806㎡ 규모다. 완도의 역사와

장보고 대사 업적, 2016년부터 선정된 장보고한상 수상자(23명) 소개·활동 사항, 수상자 기증 물품 등이 전시돼 있다. 아울러 역대 수상자 업적을 터치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가상현실(VR) 체험장, 미디어 영상실, 다목적 교육장, 옥외 힐링 정원 등을 갖췄다. 개관식에는 신우철 군수와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윤재갑·박진 국회의원, 이종걸 전 국회의원, 허궁희 군의회 의장,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박종범·장영식·안정락·전용희·오병문씨 등 역대 장보고한상 수상자와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정영수·김

명홍·김민선·박현순·김장열씨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관식은 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전당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을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장보고 대사와 수상자들의 도전 정신, 리더십을 배우고 큰 꿈을 키워 미래의 장보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룡 이사장은 “180개국 750만명 재외 동포들이 모국의 언어, 문화 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뿌리 찾아가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수상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 ‘해남사랑상품권’ 디자인 일부 변경

해남군은 24일 “지역 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 디자인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지류상품권과 카드상품권 등 2종으로 이번에 디자

인이 변경된 상품권은 지류상품권이다. 기존 상품권의 경우 뒷면이 권증에 상관없이 동일한 색상(연두색)으로 제작돼 계산 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새 디자인은 양 면에 금액을 기재하고 권증별 색상도 달리 제작했다.

이에 따라 각 권증별 금액이 뒷면에도 기재되며 1천원권 보라색, 3천원권 파란색, 5천원권 노란색, 1만원권 청록색이 뒷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선된 상품권은 10월 발행분부터 적용된다. /해남=박필용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방안 모색

### 영암군·기업체·농가대표 등 간담회 열어 공유

영암군은 21일 “기업체 관계자, 농가 대표 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번기철 농업 인력 감소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승 등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관계자들은 인력 공급이 가능한 외국

지자체와의 MOU 체결과 관리 프로그램 도입 방안 등을 공유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은 농번기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단기간 고용, 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신청 농가에 배치하는 프로그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삼호중공업 외국인

센터 인력관리 팀장은 “중공업 내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을 초청해 계절근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향살이에 지친 외국인 근로자를 위로하고 부족한 관내 농업 인력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번기철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외국 지자체와의 MOU 체결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봉영기자

## 한빛원전, 내년 사업자 지원사업 제안 발표회

### 5개 사업 분야별 발표...12월 말 최종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는 24일 “최근 한빛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2022년 사업자 지원사업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공모사업 심의 전 사업 제안 단체가 공개적으로 사업 목적·계획·효과를 발표하고 별도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을 평가하는 절차로 지난해부터 시행

했다. 이번 제안 발표회는 공모 신청 지원금 2천만원 이상 사업 150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우수 사업 발굴을 위해 평가위원을 대학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육, 경제, 복지 등 5개 사업 분야별 발표를 통해 사업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전용호 한빛원전 본부장은 “제안 발표회를 통해 한빛원전 사업자 지원사업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이 강화되고 선정된 지원사업이 지역 사회에 더욱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공모 접수를 시작한 2022년 사업자 지원사업 대상자는 10월 한빛원전 자체 심의·지역위원회 협의를 거쳐 12월 말 한수원 본사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영광=김동규기자

## 함평 자연생태공원, 가을 문화행사 다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문화대전·반려식물 순회전

함평군이 가을철을 맞아 풍성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함평군은 24일 “전날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자연생태공원 잔디광장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2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 작품들을 전시해 멸종위기 생물 보존 인식을 제고하고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외에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됐다. 23일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통기타와 색소폰 공연을 선보였으며 오는 30일과 11월 6일에는 전통 국악 공연 한량무, 진도북춤, 살풀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야외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올해 3월까지 국립재충수목원에서 개최된 ‘안녕, 나의 반려식물’ 특별전을 11월 7일까지 자연생태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순회전에서는 100여종의 다양한 반려식물을 볼 수 있으며 기본적인 식물 관리 지식도 배울 수 있다. 이상익 군수는 “11월 초까지 함평자연생태공원 내 국화, 메밀꽃, 청보리 등 다양한 꽃이 만개해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에서 잠시 벗어나 함평에서 아름다운 동·식물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평=김연수기자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나만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자동체형 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L 프레임 | 전신 에어안마 | 어깨 간격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텝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또 다른 초월의 탄생



**나만의 힐링 체어**

주요기능: 3D 입체 안마 | 음파진동 모듈 | 하이퍼 S&L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 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중력기능 | 온열기능 | 뮤직플레이기능 | 무중력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러 더 심세해진 오베론+



**나만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3단무중력 | LS프레임 | 세미스페이스 | 자동체형인식 | 7가지 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백마사지 | 다리길이조절 | 발바닥롤링 | 블루투스연결 | 종아리마사지 | 3D마사지 | 허리온열기능 | 슬라이딩방식 | 지퍼베시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나만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스마트한 마사지를 인체공학적으로 프레임 | 온열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중력기능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